



화 해 의 사 람 들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선교사 86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2019.6)

옴푸레니 지역 안에 있는 부룬디 교회 어린이 교회를 소개 합니다. 아직도 전기가 없고 공동 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집들은 철판이나 나무 판자를 이용한 집들이 대부분인 지역 입니다. 오래전에 이지역에 작은 건물을 지었고, 이곳 어린이 교회를 시작 했었습니다. 흑인지역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제가 사역하는 목회자 훈련원을 졸업한 시야 (Siya) 라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고 어린이 교회도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주 중 에는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탁아소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이 있는 어린이 교회는 이 지역에 많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역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장소나 기회가 없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거나 근처 공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매주 어린이 교회는 이곳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간식도 이 아이들에게는 큰 인기 이기도 합니다. 어릴적 부터 참석 하였던 아이들이 커서 작은 아이들을 돌봐 주는 모습도 볼 수 있는 보람있는 어린이 교회 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복음과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들이 자라서 까지 삶속에 생각속에 자리 잡아 하나님 이 들 각사람의 인생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이 기억 되어 지길 소원합니다. 시야 목사님이 성령을 의지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 가며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열정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 요청

비자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역지 이동을 고려하여 함께 기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에게 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시간에 한국방문을 계획중이며 그 기간중에 상세히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제목

1. 옴푸레니 교회의 시야(Siya) 목사님과 어린이교회를 위해..
2. 6월 16일 - 20일 까지 이곳 케이타운에서 아프리카 침례교 선교사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필요한 전략들을 나눔으로 아프리카 복음화에 필요하고 풍성한 시간이 되는 것과 준비와 진행으로 섬기는 저와 반희영 선교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3. 고2인 윤성이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초등학교 2학년 수현이가 즐겁고 행복한 삶 살길..
4. 계획중인 한국 방문에 필요를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가족의 안전과 건강위해..